

(3) 순천의 축산·양잠

① 축산

조선의 축산은 소·말·닭·산양 등을 주로 사육하였고 그 발전 정도는 낮았지만, 역축(役畜)으로서 외국에서 명성이 높았다. 한말 한때는 농가 5호 내지 10호에 한 마리의 농우(農牛)를 소유하였으며, 소나 소가죽 및 소뼈를 일본이나 러시아에 수출했던 사례가 없지 않았다. 가등말랑(加藤末郎)이 『조선농업론』(1904)에서 기술한 바에 따르면 조선의 소는 조사료(租飼料)에 잘 견디고 양순하면서도 쟁기질·퇴비생산·운반용·육용으로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소가죽과 소뼈의 이용은 부진하여 일본인들의 수집에 맡겨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1928년에 전남에는 9만 964마리의 소가 8만 1,187농가에서 사육되었고, 양도 2,364마리가 사육되었다. 한편 순천에서는 6,808마리의 소가 6,158호 농가에서 사육되었으나 양은 87마리가

전남·순천 가축 가금수

(1928. 현재, 단위 : 마리·호)

구분 지역	소			양		
	암 소	수 소	계	사양호수	산 양	면 양
전 남	28,288	62,676	90,964	81,187	2,342	22
순 천	1,778	5,030	6,808	6,158	87	-

출전 : 『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20~221쪽.

사육되었을 뿐이다. 소의 사육 두수 가운데 암소보다 수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은 역축 이용에 유용성이 있어서가 아닌가 추측된다.

종류별 돼지수

(1928. 현재, 단위 : 마리)

종류 지역	조선종		버크셔 잡종		요크셔 잡종		계	
	암	수	암	수	암	수	암	수
전 남	42,612	54,152	13,302	20,291	400	491	56,314	74,934
순 천	1,922	2,895	396	578	11	36	2,329	3,509

출전 : 『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26~227쪽.

전남에서 돼지는 총 13만 1,248마리가 사육되었는데, 조선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버크셔가 다수 보급된 상황이었다. 순천의 경우도 총 5,838마리가 사육되었으며, 조선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합방 당시에는 목장이라 칭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고, 돼지·닭·산양 등은 육용이나 난용(卵用)으로도 빈약하기 그지없는 재래종이었으며, 농가자금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생산의 정도였다. 축산의 실태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일제는 종모우(種牡牛)배치, 우역예방, 열등우거세, 축산품평회 등의 축산진흥을 위한 시책을 펼치려 했던 것이다.

말은 1906년부터 마정국(馬政局)을 두고 마필(馬匹)개량과 생산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면양은 메리노, 돼지는 버크셔와 요크셔, 닭은 레그혼 등의 품종을 각각 도입하여 권업모범장에서 시험사육을 거친 후 농가에 보급·사육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09년에는 전국의 가축사육수는 소 70만 3,844마리, 말 3만 9,860마리, 노새 7,452마리, 나귀 821마리, 돼지 56만 5,757마리, 산양 7,332마리, 닭 279만 6,259마리에 이르렀으며, 전남은 전국 축우(畜牛)의 약 7%, 돼지의 11%, 닭의 약 9% (68만 1,683마리)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가축개량과 증식은 그 목적이 식민지 착취에 있었기 때문에 1909년에는 부산에 이출우(移出牛)검역소를 만들고, 1914년에는 우시장 폐지 및 보호우(保護牛)규칙을 공포하여 조선 소를 일본으로 반출해갔다. 1924년에는 도처에 우량우 생산마을을 지정하여 황소 1마리에 암소 40마리의 비율로 소사육을 강제화함으로써 대량증식을 독촉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증식된 소는 1916년에는 가축을 합쳐서 359만원어치, 1919년에는 4만 4,700마리를 반출해갔다. 그리고 1935년부터 1941년까지 7년간에는 각 연도에 6만 8,611마리, 6만 3,242마리, 5만 8,896마리, 8만 2,551마리, 10만 5,128마리, 9만 6,821마리, 6만 4,866마리 총계 54만 115마리를 반출하였다.

1917년에는 목마장(牧馬場)과 종마소(種馬所)를 설치하는 동시에 도처에 양돈·양계 모범리동(里洞)을 지정하고 계란이나 새끼돼지를 나누어주어 사육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1919년에는 소위 면양(綿羊)증식 3개년계획을 공포하였고, 1934년에는 65만 마리의 면양과 1만 800포대의 양모생산을 위한 제3차 면양증식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1939년에는 돼지양식계획을 세워 211만 9,569마리를 목표로 하였고, 토끼증식계획을 세워 130만 마리의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

종류별 닭 마리수

(1909. 현재, 단위: 마리)

구분 지역	조선종	백색레그혼	프리마스록	나고야종	로드아이 랜드레드	기 타	계
전 남	464,400	108,130	4,516	58,998	28,317	17,322	681,683
순 천	44,375	10,770	114	186	448	-	55,893

출전: 『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30~231쪽.

1910년, 1920년 및 1936년의 전남 축산이 전국 축산에서 차지한 비율을 보면 축우는 6.9~7.5~8.0% 로, 돼지는 11.0~13.2~15.5% 로, 닭은 8.6~11.0~11.3% 로 증식되었으며, 면양은 6.8~12.7~8.3% 를 점유했다.

한편, 재래종 양봉이 채밀량은 떨어지지만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인 개량종과 함께 증식되었는데, 재래종은 주로 화순(996호)·순천(727호)·보성(481호)·곡성(466호)·담양(439호)·장성(438호)·여수(404호) 등지에서 생산되었고, 개량종은 제주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전남 축산물 생산고 비중

(단위 : %)

연도 \ 종류	소	돼지	닭	면양
1910	6.9	11.0	8.6	6.8
1920	7.5	13.2	11.0	12.7
1936	8.0	15.5	11.3	8.3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1921·1937.

봉밀·밀랍 생산현황

(1928. 현재)

구분 지역	사양상자수		채봉		채랍		사양호수
	재래종	개량종	근량	가액	근량	가액	
전남	8,738	1,164	65,871	97,733	10,991	11,467	7,243
순천	986	39	8,078	16,516	1,476	738	727

출전 : 『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95·232~233쪽.

② 양잠

1910년 잠업전습소(蠶業專習所)를 설치하여 1910년 전남에서 571명, 1911년에 4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당시 전남지역 잠업전습소는 무안·광주·창평·순천·홍양·보성·동복·능주·장흥·강진·해남·영암·남평·나주·영광·장성·담양의 17지역에 각 1개소가 설치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남지역을 양잠 최적지로 선정한 데는 기후상의 유리성을 고려한 것은 물론이지만 잉여노동력의 활용이라는 경영의 이점을 노린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의 하나였다.

전남·순천의 상전면적

(1928. 현재, 단위 : 정보)

구분 지역	기설상전			신설상전			합계		
	본반별	견적반별	계	본반별	견적반별	계	본반별	견적반별	계
전남	31,084	16,031	47,115	5,104	2,400	7,504	36,188	18,431	54,619
순천	184.6	89.6	274.2	34.3	21.1	55.4	218.9	110.7	329.6

출전 : 『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05쪽.

전남의 양잠은 1930년부터 서서히 줄어들어 한때는 전국의 16%를 차지하던 산출액이 1939년에는 약 9%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당시까지의 주요 산지는 나주·화순·고흥·담양·순천 등지였다.

전남의 상전(桑田)면적은 총 5만 4,619정보였고, 순천은 329.6정보였다. 이 가운데 기설상전은 전남이 4만 7,115정보이고 순천은 274.2정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순천 봄 누에고치 판매상황

(1928. 현재, 단위 : 석·원)

지역	등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4 등	등 외	계
전 남	수 량	1,558	6,450	4,211	1,585	310	101	14,215
	가 격	86,573	330,296	194,363	65,746	11,093	3,140	691,211
순 천	수 량	47	301	352	122	20	3	845
	가 격	2,542	15,092	16,072	5,009	715	111	39,541

출전 : 『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13쪽.

1928년도 전남의 봄 누에고치 판매는 6개 등급에서 총 1만 4215석 69만 1211원어치가 판매되었고, 순천에서는 845석, 3만 9541원어치가 판매되었다.

전남·순천 가을 누에고치 판매상황

(1928. 현재, 단위 : 석·원)

지역	등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4 등	등 외	계
전 남	수 량	1,364	4,321	3,264	1,516	436	198	11,099
	가 격	59,507	165,207	110,279	45,052	11,626	4,353	396,024
순 천	수 량	14	80	154	85	19	5	357
	가 격	577	2,952	5,104	2,463	495	102	11,693

출전 : 『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15~216쪽.

가을 누에고치는 전남이 1만 1,099석, 39만 6,024원어치가 판매되었고 순천이 357석, 1만 1,693원어치가 판매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봄 누에고치의 양이 많고, 가격도 비싼 것을 알 수 있다.